

한국은 미륵·아미타신앙 모두 포용

화쟁아카데미·시민행성

조성택 교수(고려대)

- 1강 '사키야무니 붓다 등장의 역사적 배경'
- 2강 역사적 붓다의 재구성
- 3강 붓다 출현 그리고 '불교'의 문명사적 의의: 귀환과 출가
- 4강 신앙으로서의 부처님: 부처님은 '경쟁' 중
- 5강 근대 유럽이 바라본 '붓다': 부처님은 '영국신사'인가 '맑시스트'인가?
- 6강 우리 시대의 '붓다' 그리고 '부처님'

오늘은 미륵신앙과 아미타신앙을 비교 해서 이야기할까합니다. 미륵신앙과 아미타 신앙이 인도, 중국에서는 어떻게 변형되어왔는가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한국불교의 특징 또한 보입니다. 세 곳 모두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인도에서는 아미타신앙이 미륵신앙보다 좀 더 인기를 끌었던 반면 중국에서는 두 가지가 배타적 경쟁관계가 되고, 이후 한국에서는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륵·아미타신앙의 차이

미륵신앙의 출발 지점은 현재 미륵보살이 어디 계시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륵보살은 육계의 여섯 하늘 중 하나인 도솔천에 있습니다. 도솔천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싣타트라 태자로 태어나기 전 있던 곳입니다. 다음에 올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기에 의미상 적합한 장소죠. 또한 인간세계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점 역시 미륵보살의 장소로 어울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도솔천은 육계의 하늘이기에 여전히 육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깨끗하지 못한 곳이지요. 반면 아미타부처님이 있다는 서방정토는 삼계 바깥에 있는 다른 우주입니다. 아미타는 자기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인거죠. 한반은 도솔천에 있고 다른 분은 서방정토에 있다는 것, 처음 출발부터 성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은 아미타불 자신의 '구원 능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어떤 고통도 없는, 천상의 지복(至福)만이 존재하는 정토에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륵신앙은 좀 복잡합니다. 신앙 형태에 따라 '상생(上生)' 또는 '하생(下生)'의 방식이 존재하죠. 상생의 유형에서는 신도가 도솔천에 환생하여 미륵을 친견하고자 하며, '하생(下生)'의 유형에서는 미륵이 부처로 지상에 출현할 때 자신도 지상에 재생(再生)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에는 미륵이 살고 있는 도솔천이라는 '장소'로부터 미륵이 부처로서 미래에

도래하는 '시간'이라는 강조점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도솔천에 태어나겠다고 하는 것이 신라의 향가 도솔가입니다. 사회변혁 기이자 정치적 혼란기죠. 불교도들은 보통 미륵이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기를 바라는 혁명 사상 및 활동과 관련 될 경우 미륵의 '하생(下生)'은 보다 압박한 것으로 믿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지도자들은 종종 자신이 미륵의 현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사회운동을 꿈꾸며 변혁의 중심에 서는 것은 미륵 신앙입니다.

인도, 대중적인 아미타신앙

미륵신앙은 복합적이고 불분명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붓다로서 미륵을 인정하는 자료들은 너무나 단편적이지요. 인도에서 미륵신앙이 생겨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 불교도들에게 도솔천은 육계라는 이유로 이상적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석가모니가 존재하던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었기에 미륵은 별로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미륵은 인도가 아닌 곳에서, 후대가 되어서야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4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미륵불상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편 인도에 존재했던 구원론적 신앙은 2세기경 아미타신앙으로 변모됩니다. 동아시아의 아미타불신앙이 관 혹은 염불과 같이 아미타불의 모습에 집중한다거나 그의 이름을 외우는 등 철저하게 아미타불에 헌신하는 신앙행위를 강조하는 반면, 초기 인도에서는 아미타불 정토 재생을 위해 보시 혹은 사경과 같은 신앙행위를 언급합니다. 또한 기원을 전후해 퍼진 멸법이라는 관념, 즉 붓다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된다는 종말론적인 생각은 인도 승려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붓다라는 목표를 추구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지닌 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신앙은 재가 불자뿐 아니라 인

도의 거의 모든 대승 전통 출가자들에게 타당한 종교적 목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인도에서는 인도 특유의 종교관념으로 인해 미륵신앙이 종교로 굳어지기는 어려웠지만 아미타 신앙은 시대여건상 하나의 지향점이 될 수 있었죠.

중국, 미륵·아미타 우월성 논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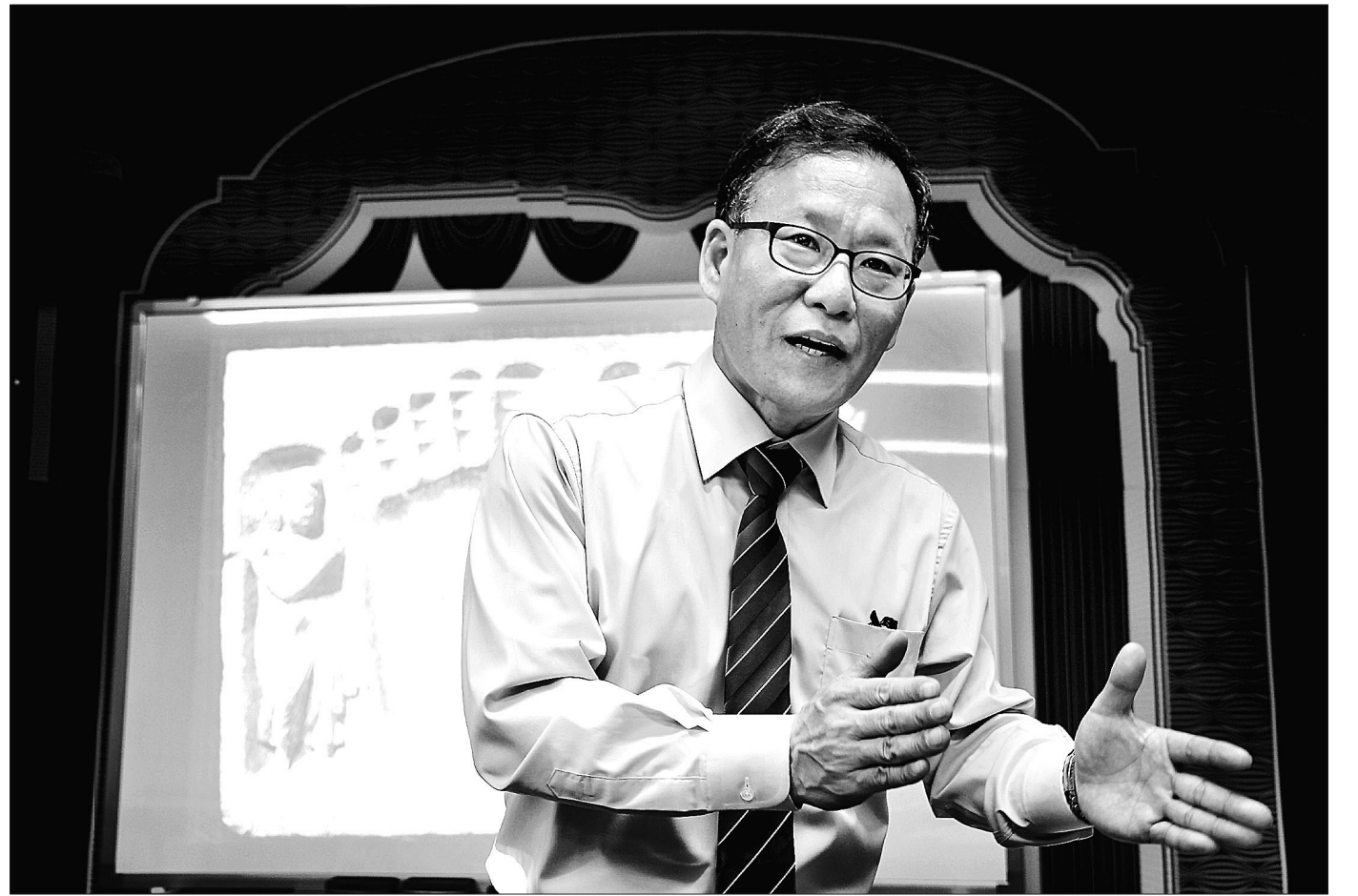
이제 중국으로 옮겨가 이야기를 해보죠. 중국을 하나의 문화라고 이해합니다만, 중국은 사실 유럽 범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관례도 다르고 풍습도 다릅니다. 때문에 중국불교가 한국에 전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불교로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족과 비한족의 구분은 가져야 하죠.

불교가 처음 중국에 소개되었을 때, 당시 중국 북방을 점령하고 있던 유목민족과 남쪽의 한족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방의 유목민족은 처음부터 불교에 우호적이었어. 불교의 업설은 혈연관계로 왕권을 계승하는 한족에 의해 무시당하던 그들의 선출제 왕권에 특별한 의미와 정당성을 부여해줬죠. 게다가 미륵과 전륜성왕의 개념은 당시 그들의 중국 북방에 대한 침입과 정복을 정당화해 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족은 불교가 유교적 사회 질서에 기반한 자신들의 고유한 풍속과 달랐기 때문에 불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출가 전통과 금욕적 수행은 가족의 혈연적 유대와 그들의 조상숭배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족은 북방유목민족의 침입으로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불교를 받아들일게 됩니다. 한족은 종교행위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상숭배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덤과 사당인데 혼란의 와중에 고향을 떠나게 된 이들에게 당시 불교는 당시 거의 마비 상태가 된 유교의 의례와 종교적 기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교 승려들은 회화와 죄책감으로 고통 받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종교적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며, 피난길에 죽은 이들의 영혼 또한 달래줄 수 있었죠.

이후 수, 당나라를 거쳐 중원을 되찾게 되면서 왕실의 비호하에서 불교 역시 융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부터 불교는 사회적 문제에 전혀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제도 간은 기본적으로 유교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고, 불교의 역할은 특정시간, 영역에 대해서만 제한되었었죠. 미륵과 아미타신앙의 배타적 경쟁 신앙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수당이후 한족이 아미타 신앙을 중심으로 사후영생에 관심을 두면서 미륵에 관한 관심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륵이 완전히 망각된 적은 없었어.



조성택 교수는 ... 1957년 부산에서 출생했다.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으며, U.C 버클리에서 인도 초기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 비교종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간 <불교평론>,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철학회 편집이사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불이상(학술 부문),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인도 중국 한국 등 지역, 시대 따라

아미타, 미륵신앙 제각기 수용

육계 도솔천에 속한 미륵,

동아시아 역사서 변혁 주제로 등장

아미타 정토 신앙, 왕실 민중 선호

한국 불교는 중국화 되지 않은

한국학의 지평확장 가능성 내재

그는 기존 질서에 반하는 정치사회적 운동의 중심적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미래권력중의 하나인 미륵은 언제나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미륵은 또한 종교적 엘리트들의 신앙 대상이기도 하였습니. 잘 알려진 대로 현장은 도솔천에 다시 태어나 미래불의 가르침을 듣고 유식 불교에 대한 지식을 완성하고 싶어 했던 미륵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러나 보니 아미타 신앙을 선호했던 왕실과 민중, 그리고 미륵을 선호했던 일부 엘리트 승려들간 두 신앙은 배타적 경쟁 관계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미타 신앙을 믿는 이들은 육계에 속

하는 미륵보다 더 깨끗한 서방정토의 장소적 우월성을 더며 옹호하고 나서죠. 인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중국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 미륵·아미타 인기도 같아

한편 한국은 미륵과 아미타신앙을 종합적으로 포용합니다. 처음 북방 유목민족에 의해 수입된 북조(北朝)를 통하여 불교를 소개받은 한반도에서는 당연히 처음에는 미륵 신앙이 강조되었죠. 중국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했던 한반도의 왕조들 또한 이 새로운 종교가 그들의 나라를 신비로운 힘으로 지켜주길 바랐던 측면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륵의 인기는 당나라 시대 중국에서 아미타불 신앙에 의해 미륵신앙이 침체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남아있는 370개의 미륵 형상 중 221개가 선불교가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인 고려시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불교는 일반적으로 금욕 수행과 명상 수행을 강조하는 반면 신앙 활동을 무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 그와 같이 많은 미륵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미래불'의 관념이 한국 불교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미륵 신앙은 미술, 문학, 민담, 대중적인 정치 활동, 그리고 무속적인 종교들을

포함한 한국인의 문화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미타신앙 역시 한국에서는 인기를 끄니다. 원효와 같은 신라의 승려들은 아미타 불의 '정토'와 미륵의 '도솔천'과 관련해서는 천상에 재생하든, 그것이 그 자체로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무상정등각의 성취가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정토든 도솔천이든 원효에게 있어 그 차이는 의미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관점은 이후 신라 승려들에 의해 계승됩니다.

한국인들은 미륵사상을 어떻게 그토록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한국의 토착적인 믿음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단군신화에서 보면 하늘의 아들인 환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반도로 강림했습니다. 이러한 설화의 골격이 재림 부처로서 미륵설화와 유사하다는 것은 무당할 필요가 없었죠.

이처럼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한국불교야말로 한국문화 중 가장 중국화 되지 않은 전통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유일하게 한국학의 지평과 한국을 바라보는 문화적 컨텍스트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거죠.

정리=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7월 15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